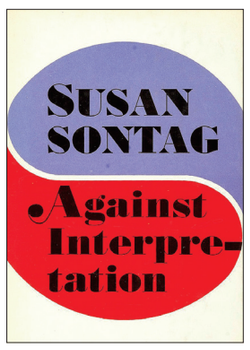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⑤ 대각전(2) – 〈화엄경〉 연화장세계

불교, 21세기 우리에게 꼭 맞는 종교



수전 손택의 저서 'Against_ Interpretation(해석에 반대한다, 1966)' 표지.

저번 회에 이어 동국대학교 대각전의 연화장세계에 머물러 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나는 대각전에 봉안된 만 분의 부처님이 서로를 장엄하는 세계, 즉 부처님이 부처님을 장엄하는 불화엄의 세계를 〈화엄경〉의 연화장세계라고 하였고 이를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시는 경계인 유불여불의 경지라고 하였다. 다만 이런 부처님과 부처님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위대해서 그 위가 없는 분, 그렇기에 한 세계에 두 분이 계실 수 없는 부처님이 한 공간 안에서 서로를 장엄하시는 이중적 상태라고 하였고, 이를 이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말하다 멈추게 되었다.

이어서 말하자면 나는 이해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이해는 머리 속의 소화작용이다. 머리 속에서 소화가 다 되어버린 철학과 내용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혹자는 소화를 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이 되어 자기를 풍족하게 만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만, 요즘은 비만이 질병이라 하는 시대이다. 자아의 살을 채우는 것도 정신적 비만이다. 꼭 무아를 말하는 불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자아의 살을 채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인이라면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우리는 부처님을 그들은 신을 채우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언젠가 얘기한 행지의 일이다.

물론 이해는 필요하다. 도대체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읽어가는 일이 이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 나아가 내가 대각전의 만불을 보고 이를 〈화엄경〉의 연화장세계로 이미지를 중첩시켜 가는 것도 사실은 이해의 한 갈래이다. 니체는 "사실은 없다, 해석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고, 이는 내가 종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되는 것 같다. 물론 모든 지적작용을 이해라고 광범위하게 부를 때, 나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거부감을 가지는 이해는 바로 해석학이다. 이해를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이다. 해석을 다루는 학문인 해석학 자체가 이해의 과학이라고 불리운다. 내가 계속 종교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해가 바로 이것이다.

20세기 중후반 미국의 예술평론에서 여왕이라 고 불린 수전 손택(그녀의 부고기사 명이 '여왕이 영면하다'였다)은 해석은 번역작업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술을 겨냥했을 때, 해석은 작품 전체에서 일련의 요소(X, Y, Z 따위의 요소)를 뽑아내는 것을 뜻한다. 해석의 의무는 일종의 번역작업이다. 해석자는 말한다. 보시오, X가 정말 A인 것 – 혹은, 사실상 A를 뜻한다는 것 – 을 모른단 말이오? Y가 사실은 B요, Z가 실은 C라는 것을?"(〈해석에 반대한다〉, 22) 여기서 원래 예술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X, Y, Z의 요소들은 X로서 Y가 진행되고 X와 Y로서 Z가 완결되는 작품 안에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작품에 나타나지도 않은 A, B, C를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야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수전 손택.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불교는 신화 등에 현대적 해석 필요 없어
내면서 비롯된 고통의 원인과 해방에 집중
구원 목적 초월적 존재 아닌 현실서 찾아

수전 손택의 말을 더 빌려보자. "도대체 어떤 상황이 원문의 변형이라는 이 별스러운 짓을 부추기고 있는가? 이에 답이 될 자료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해석은 과학적 계몽주의의 '사실주의적' 세계관이 신화가 지녔던 권능과 신화에 대한 믿음을 깨부숴버린 고대의 후기 고전주의 문화에서 처음 나타난다. 신화 이후 시대의 의식에 이 의문 – 종교적 상징의 고상함에 대한 의문- 이 들어서자, 더 이상 옛 형식 그대로 옛 텍스트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옛 텍스트를 '현대적' 요구에 일치시키기 위해 해석이 필요하게 됐다."(같은 책, 22-3)

즉 문제는 창작의 시점과 감상의 시점이 갖는 시간적 격차이다. 옛날 마을 어귀에 지아비가 죽으면 따라서 죽은 아내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 세웠다는 열녀문은 세울 당시에는 아주 숭고한 의미를 가진 조형물이었겠지만,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 된다. 수전 손택은 이런 예시로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인 중세 기독교 교부(철학자)들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련의 사건들, 하지만 서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를 그들의 현재였던 중세의 기독교 윤리에 맞추어 갔음을 들었다. 이를 그리스 예술이라는 X, Y, Z에 기독교 윤리라는 A, B, C를 가져다 해석한 예시가 될 것이다. 아마 그리고 수전 손택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해석된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비윤리와 야만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구약이었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불교는 이런 신화나 비윤리적 사건, 야만적인 일상에 대해서 번거로이 현대에 맞추어 해석할 필요는 없는 최대의 장점이 있다. 부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던 건 석가족의 위대함과 정복의 역사도 아니고, 신들의 기상천외한 드라마도 아니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과 고통을 야기하는 원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에 이르는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이는 거의 전적으로 자신 내면의 일로만 이루어졌다. 심지어 형이상학적 체계에 있어서도 이를 구축하는 초월적 존재를 전혀 상정하지 않으셨다. 서구 불교학의 여명을 연 후라우발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영혼 혹은 최고 존재를 고려하는 일 없이, 모든 심리적 과정을 오직 심리적 요소로 돌렸다."(〈불교학리뷰 8〉, 367) 이런 면에서 불교는 처음부터 형이상학적 체계 없이 세계를 깔끔하게 설명하고 또 구원의 목적을 신비가 아니라 현실에서 찾는 종교로 성립되었다. 불교는 처음부터 현대적 요구를 가진 21세기의 우리에게 꼭 맞는 종교인 것이다. 즉 현대적 요구에 의해 해석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현대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21세기의 사람에게 맞춤으로 만들어진 듯한 불교에 있어서 현대인이 '해석'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버렸다. 바로 대승의 영역이다. 초기불교와 아비달마불교의 원리적 세계에서 부처님은 한 우주에 한 분만 계셔야 했지만, 대승에서는 원리를 무시한 채 수천 수만분의 붓다가 서로를 중첩하며 이 우주를 광명으로 채우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계에 가득찬 옥호광을 보고 있는가? 이 보이지 않는 광명에 대해서 아직 말을 다하지 못했음으로 우리는 아직 대각전에 머물러야 한다. 〈동국대 박사〉

보살심으로 모은 정재들
승가와 빈자에 보시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⑩ 삼계교 무진장행

삼계교가 탄압을 받게 된 원인 중 하나인 무진장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도사의 무진장원의 기록을 먼저 보십시오.

"삼계사(師) 신의(信義)는 화도사에 무진장을 두고, 정관(貞觀) 연후에는 전금과 금옥을 보시하여 그 쌓임이 측량할 수 없었으며, 항시 승려의 감시를 통해 3등분으로 나누었다. 1은 천하 가람승과 수리에 공양하고, 1은 천하의 굶주린 이의 비전의 고통에 보시함이요, 1은 무애(無碍)의 공양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진장시)를 권화함이다."

이렇게 제1분(分)은 불물(佛物;가람승과 사찰수리)에, 또 1분은 비전물(悲田物)로서 일체의 빈궁자에게 베풀며, 또 1분은 비축 분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불타 당시의 재산물의 분배개념, 즉 4등분하여 1은 식생활에, 또 1은 저축 분에, 다시 1은 투자 분에, 나머지 1은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라는 개념과 흡사합니다.

화도사의 무진장원의 운영 특히 대여의 방법이, 인도에서 엄중히 대출을 금지했던 내용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도사의 무진장원에서의 방법은 대여는 매우 간단하며, 게다가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기한이 되면 반환하는, 즉 채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선사업이었기 때문에 서민계층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금융기관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삼계교의 무진장은 대승불교가 일어남에 따라, 자리이타행이 동반되며, 복전(福田)사상에 의한 대자비행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진장 사상의 전파를 신라의 원광 법사가 도입해 재창출했다는 점도 눈길이 갑니다. 삼계교의 무진장원 창립설은 2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신행 선사(540~594, 장안 입성은 589년)의 설로 봅니다. 신라 원광 법사가 장안(長安)에 들어가(589년, 삼계교 신행과 같은 해) 신행의 무진장행의 작법들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원광 법사가 입수한 것은 무진장원의 다른 이름인, '점찰보(點察寶)'였습니다. '점찰보'라는 것은, 〈점찰선악업보경〉에서 창안된 '보(寶)'라는 경제적 개념과 법회성격의 '점찰행법'으로 나뉘어져서 〈삼국유사〉의 제4권 '원광서학조'에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 중기의 〈점찰선악업보경〉의 신봉자였으며, 철저하게 참회법을 수행한 진표 율사는 바로 이 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법으로 크나큰 교화의 북을 울려 퍼지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찰선악업보경〉의 새로운 '점찰참회법'은, 이후 신라에서 고려로 들어와서도 성행·발전해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 등의 거찰(巨刹)에서 성행했습니다.

〈점찰선악업보경〉은 '지장삼부경' 중 하나이며, 이러한 '지장삼부경'은 모두 삼계교에서 각별하게 주장한 경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장십륜경〉은 삼계교에서, 특별하게 많이 애독하며 실천한 경전으로, 삼계교를 '지장교'라고도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신행유문〉에 보이는 무진장 법행(法行)에서는, 삼계교가 주창한 보불보법을 기반합니다. 따라서 삼계교의 중요 덕목인 '보시'에 있어서도 제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독행(獨行) 보시'로는 공덕이 적으며, 공동으로 할 때 보법(普法)의 행인 보행(普行)의 진실한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계교에서는 '보시'를 중요시하는데, 여기서 보시란 보살의 무상도(無上道), 즉 자비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시를 상수로 하는 육바라밀로 해서 중생제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욕의 락(樂)과 보화(寶貨)등 모든 재리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이름 나기를 바라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 이런 것들을 재도하고자 맹세한다(〈화엄경〉 현수보살품)"는 것이 보살의 초발심이며, 공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신행의 삼계교도가 이것을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실현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무진장원에 모여진 재물은 대승법계행(大乘法界行)으로서 삼보에 공양하는데, 그것은 빈궁인을 구제하는 보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고, 상락아정(常樂我淨)행 이외의 것으로 변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